

'썩쓰리' 본격 데뷔 돌입...데뷔곡 후보 이상순 작곡 '깜짝'

'여름 안에서' 썩쓰리 버전 준비...개성 발휘

'수발 전문' 광희 객원 멤버·박문치 편곡

MBC '놀면 뭐하니?' 썩쓰리 유재석, 이효리, 비(정지훈)가 데뷔곡 후보로 '다시 여기 바닷가'와 '그 여름을 틀어쥐'를 선정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연출 김태호 김윤집 등)에는 썩쓰리 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을 만나 스타일링을 위한 깜짝 선물인 커버곡 '여름 안에서' 녹음 현장을 공개했다.

썩쓰리는 데뷔곡 후보 중 두 곡을 만장일치로 저장했다. 화려한 브라스가 인상적인 '그 여름을 틀어쥐'는 아이유, 트와이스와 작업한 심은지 작곡가의 작품이었다. 또 린다G가 작사한 '다시 여기 바닷가'는 이상순의 곡이었다.

유두래곤과 비룡은 '다시 여기 바닷가'의 작곡가 이상순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린다G는 본래 이효리와 이상순이 강아지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녹음한 '다시 여기 바닷가' 어쿠스틱 버전을 들려줬고, 유두래곤과 비룡은 완전히 매료돼 "이런 노래

만들면서 그동안 왜 안 했느냐"라고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세 사람은 막상막하 명곡들 가운데 타이틀곡 후보로 '그 여름을 틀어쥐'와 '다시 여기 바닷가'를 선정했다.

또 썩쓰리는 데뷔를 앞두고 가수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스타일링 조건을 받기 위해 한혜연을 만났다.

한혜연은 개성이 뚜렷한 썩쓰리 멤버들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의상을 통일하는 것 보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한혜연의 제안대로 의상을 입어본 썩쓰리는 물론 만난 고기처럼 슈퍼스타력을 뽐냈다. 린다G는 크롭티와 푸른 스커트를 입고 해외파다 운(?) 매력을 과시하고, 반다나로 포인트를 준 트로피 룩을 근사하게 완성했다.

유두래곤은 파리저엔 스타일 보라색 나팔바지와 뽀족구두를 모델 사이즈 그대로 소화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린다G는 변신한 유두래곤에 "꿀 보기 싫어!"라고 애정 어린 소감을 밝혀 웃음을 안겼다.

비룡은 90년대 아이돌 패션을 재현한 꾸러기 룩, 라이트 핑크가 포인트인 네온 클래식 룩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새로운 스타일을 입고 팬들을 위한 하보 촬영에 임한 썩쓰리는 넘치는 흥과 슈퍼스타력을 뽐내며 실 톤 없이 센터 욕심을 부려 웃음을 유발했다.

흥이 제대로 터져버린 린다G와 비룡은 현장을 댄스 런웨이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본 유두래곤은 "미치겠네 진짜"라고 허를 차 현실 티카타가 삼남매 케미를 자랑했다.

어떤 의상도 소화하는 슈퍼스타력과 물오른 예능감이 유감없이 터진 현장이었다.

그런가 하면 썩쓰리는 데뷔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깜짝 선물로 '여름 안에서' 썩쓰리 버전을 준비했다. '여름 안에서' 썩쓰리 버전은 뉴트로 장인 박문치가 편곡으로 참여했고, '수발 전문' 광희가 객원 멤버로 합류했다.

썩쓰리는 개성을 발휘하며 노래 발매경에 빠졌다. 린다G는 트로트 창법으로, 비룡은 공기와 소울을 흠뻑 넣은 창법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둘은 예능감을 뽐낸 후 레전드 가수답게 담백한 감성으로 '여름 안에서'를 완벽 소화해 박문치를 웃게 만들었다.



유두래곤은 정직한 목소리와 칼 박자를 선보였고 광희는 기계음이 더해진 듯한 작곡을 부르는 목소리로 썩쓰리를 놀라게했다. 이후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다시 뭉친 썩쓰리는 만남이 거듭될

수록 서로가 꿀 보기 싫어진다며 티격태격 케미를 뽐내더니, 갑자기 뒤통수가 절벽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겼다. 이어진 예고편에선 청량감 넘치

는 '여름 안에서' 뮤비 촬영 현장과 첫 번째 곡 '다시 여기 바닷가' 녹음에 돌입한 썩쓰리의 모습이 공개돼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뉴스

'아형' 김준호x박영진 "‘개콘’ 종영에 절로 눈물"

'장르만 코미디' 홍보... '웃픈' 에피소드 대방출



개그맨 김준호와 박영진이 미친 입담을 선보이며 '아는 형님'을 완벽 접수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 김준호와 박영진은 '개그콘서트' 종영에 따른 소회와 새롭게 시작하는 '장르만 코미디'

홍보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이날 박영진은 '개그콘서트' 종영에 대해 "웬만하면 눈물 안 흘리는데 저절로 나왔다"라고 전했고 김준호는 "개그콘서트가 없어져 코미디가 많이 힘들다.

이제 JTBC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장르만 코미디'다. 우리의 목표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박영진은 개그계 선배 김준호에 대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이지만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술자리나 식사는 안 하고 지낸다.

선배가 너무 진지하다. 심지어 지금도 너무 툰이 다운 돼있다"면서, "나 몫을 걸고 나왔다.

같이 살려야 할 거 아니냐. 난 어제 살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호통쳐 모두를 폭소케 했다.

이어 "김준호랑 김준현, 송준근이 술자리를 하는데, 김준호 선배가 '내가 한 번만 더 진지한 이야기하면 내 뺨을 때려'라고 했다.

시작하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따귀를 맞았다"라고 폭소했고 이에 김준호는 "집에 갈 때까지 50대 정도 맞았다.

'이제 그만해!'라고 했더니 또 한 대를 맞았다"라고 추억해 큰 웃음을 안겼다.

이어 "최근 누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다시 나 혼자 산다'였다.

제목만 보고 안 한다고 했다"고 덧붙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김준호와 박영진이 새롭게 선보일 코미디 프로그램 JTBC '장르만 코미디'는 오는 7월4일 오후 7시 40분에 처음 방송된다.

양준혁, 12월 결혼 "야구장 결혼식 소망...결정은 아직"

방송인이자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인 양준혁이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양준혁 측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날짜나 결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준혁은 꾸린 양준혁 야구재단 이 매년 여는 자선 야구대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 관계자는 "야구장 결혼식을 소망하지만 아직 절차상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준혁은 지난 1월 SBS 플러스 밥을 먹고 다니냐 에서 열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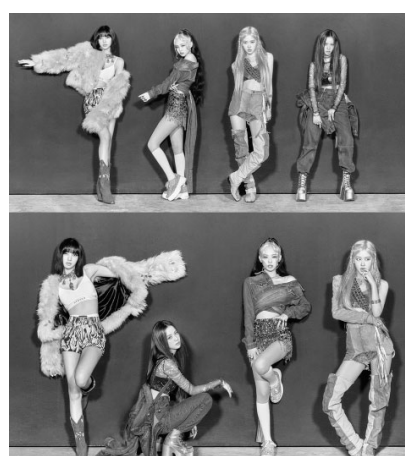
다"라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김수미는 결혼식 장소로 야구장을 적극 추천했다.

양준혁은 예비신부와 오랜 지인으로 지내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예비신부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과거 음악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백' 블랙핑크, 韓+해외 64개국 차트 올킬



그들 블랙핑크가 사흘째 국내의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며 글로벌 톱 걸그룹다운 존재감을 보여줬다.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선공개 타이틀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은 28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바이브, 지니, 벅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실시간 점유율 측정 최고치를 뜻하는 '지붕킥' 2회와 24시간 내 최고 순위 1위를 단숨에 달성하며 뜨거운 인기몰이 중이다.

해외 반응도 폭발적이다. 지난 26일 발매 직후 전 세계 아이튠즈 송차트에서 총 64개국에서 1위에 랭크됐다. 이는 역대 K팝 걸그룹 중 최고 기록이다. 또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 라인뮤직과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QQ뮤직, 중국 음악 플랫폼 텐센트 실시간 뮤직차트에서도 1위를 석권하며 독보적인 글로벌 파급력을 선보였다.

블랙핑크는 지난 28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했다. 컴백 후 첫 음악 방송 무대. 블랙핑크의 압도적 1위 유 라이크 댓' 무대를 선보였다.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고조되는 보컬과 폭발적인 드롭 파트에 반전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힙합 곡이다. 곡이 진행될수록 더해지는 파워풀한 비트가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해 높이 비상하자'는 블랙핑크의 메시지가 담겼다.

음원과 함께 베일을 벗은 '하우 유 라이크 댓'의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약 32시간 만에 유튜브 1억뷰를 돌파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행복하게 살겠다" 김경진♥전수민, 2년여 열애 끝 백년가약



개그맨 김경진(37)과 모델 전수민(30)이 웨딩마치를 울리고 부부가 됐다.

김경진과 전수민은 27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어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1부 사회는 고명환이, 2부 사회는 유정승이 맡았다.

축가는 1부 소명과 김경록이, 2부 혼재이 김동찬 최대성이 담당했다. 김경진과 전수민은 한 행사가 끝나고 마련된 모임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여의 열애 끝에 결실을 맺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해 김경진의 친동생이 결혼하면서 양가에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린 뒤 결혼을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두 사람은 결혼식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혔다. 전수민은 "연애할 때처럼 한결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김경진은 "수민이 걱정 안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런 가정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진은 첫 만남 순간을 떠올리며 "저는 수민이의 댄스를 보고 한 눈에 반했다"고 했다. 전수민은 "저는 오빠를 봤을 때 밝고 배려심이 많고 섬세함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년 정도 연애 했는데 후회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질투도 귀여워...연애세포 자극



이초희는 지난 27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극본 양희승/연출

이재상/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에서 사랑스러운 감정 연기로 극적 재미를 높였다.

이초희가 연기하는 송다희는 윤재석(이상)이 분)과 전 여자친구 지성경(이성경 분)의 과거 사랑 이야기를 듣다가 질투심이 폭발했다.

쿨하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속이 상한 다희는 차갑게 돌변했다. 다희의 감정의 변화를 깨닫지 못한 재석이 과거사를 계속 이어가자 결국 빠진 마음을

드러냈다.

입이 툭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확 바뀐 다희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미소로 유발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희의 매력이 배가된 이 장면에서 이초희의 탄탄한 연기력이 빛이 났다.

이초희는 감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순간을 몰입도 있게 표현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현재 다재 커플의 사랑스러운 연애로 흥미를 자극한다. 이날 방송도 특타가렸다가 재석의 노래 선물을 받고 다시 입꼬리가 올라가는 다희의 감정 변화는 안방극장의 연애 세포를 자극했다.